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世系)라.

‘세계’(世系)라는 원어(비블로스 게네세오스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는 ‘족보의 책’이라는 뜻이다. 복음서들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며, 마태복음의 첫 부분은 메시아의 족보를 증거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고(창 22:18), 다윗에게 그의 몸에서 날 자식으로 그 나라의 위(位)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삼하 7:12-13, 16). 이것들은 메시아 약속이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사 9:7), ‘다윗의 의로운 가지’(렘 23:5), ‘내 종 다윗’(겔 34:23), ‘그 왕 다윗’(호 3:5)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은 세 가지 진리를 보여준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전 3:1). 하나님의 때는 때때로 긴 세월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주전 2천년경의 인물이고, 다윗은 주전 천년경의 인물이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벧후 3:8).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벌써 2천년이 지났지만 그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 사람은 심령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어서 혹은 약속을 지키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약속을 어긴다. 시간 약속을 어기고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죄이다(롬 1:3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바른 인격의 모습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만세 전에 계획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행할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그의 때와 그의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한다.

(2-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특별한 이름들이 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죄인들의 이름이다. 실상,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도 과거에 죄인이었다. 그는 당시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세리 즉 세관공무원이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 신약성경 27권 중 한 권을 쓴 성경 기록자가 된 것이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쓴 특별한 이름들 중 하나는 다말이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이었다.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 외롭게 지나다가 한 창녀에게 들어갔는데, 그가 바로 다말이다. 다말은 남편이 죽은 후 시아버지가 옛날 풍습대로 시동생을 남편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었다. 이것은 유다에게 부끄러운 실수와 부족이었고 다말에게도 악한 일이었다.

실상, 유다는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을 때 그를 죽이는 대신 애굽에 파는 일을 제안한 자이었고 그 후 그의 아내가 죽었고 그의 세 아들 중 첫째와 둘째도 죽었었다. 그러나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가 애굽에 두 번째로 형제들과 막내 베나민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는 베나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이 베나민을 대신해 애굽에 인질로 잡히겠다고 말하며 아버지 야곱과 한 약속대로 베나민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를 간구한 것을 보면 좋은 인격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았다. 여하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일은 이런 부끄러운 배경 속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셨다.

마태가 이 일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을 암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다.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스런 죄악들을 깨끗케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와 악행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義)만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거룩하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4-5절] 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은 라합과 룻이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창녀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다. 한 사람은 부도덕하고 천한 신분의 이방 여인이

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어서 과부가 된 불행했던 이방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라합은 천한 죄인이 존귀한 성도가 된 경우이고, 룻은 불행한 이방인이 복된 선민이 된 경우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의 창녀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가엾은 무명의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언급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분명히 신약시대에 있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시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비천한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가 존귀한 성도의 회중에 들어왔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며 그가 약속하신 천국 영광을 바라며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것밖에 없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우리야의 아내라는 여인도 언급되었다. 우리야는 다윗의 충성스런 신하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야를 고의로 전장(戰場)에 내세워 죽게 하였다.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汚點)이며 죄이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아야 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첫 아기는 죽었고 다윗은 자기 집에 칼이 영영히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실수 외에는 다윗은 역사상 보기 드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큰 죄를 범한 경험이 있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된 행위를 인정하신 것은 아니나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은 죄악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추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이루셨다.

이 일은 마치 요셉을 판 형들의 악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된 것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인류의 구속(救贖)을 이루는 일이 된 것과도 같다. 악을 행한 자들의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지만,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지는 않았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공홀로 그의 일들을 이루신다. 인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홀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홀을 찬송하며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7-11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아를 낳고 웃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악한 남자들도 많이 들어 있다. 다윗의 자손들인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자들이었다.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숭배에 떨어졌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한 자이었다. 아사는 경건하였으나 말년에 발에 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하였다. 여호사밧도 경건했으나 악한 왕 아합과 교제를 끊지 않음으로 그의 자녀들의 타락과 부패의 길을 닦았다. 요람[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취함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본받았고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치시므로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유다 왕들의 명단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으나, 그들도 다 악한 자들이었다.

그 다음, 웃시아는 교만해져 제사장의 일을 하려 하다가 나병이 들어 여생을 마쳤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의 많은 우상숭배로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아몬, 여고나(여호야긴) 등도 악하였다. 마침내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

로 이어진다. 구약시대의 역사 전체가 그러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메시아의 족보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흘러내려왔다. 사람들의 많은 부족과 무력(無力)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시요, 그의 크신 공훈은 죄인들을 능히 구원할 구주를 보내셨고 또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악인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진실한 성도들은 오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참 교회를 세우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12-17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의 것과 좀 다른데, 그 차이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옛 시대에는 오늘날 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이 종종 있었다. 둘째로, 옛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입양(入養) 제도가 있고, 특히 옛 시대에는 수혼(嫂婚) 제도,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신 25:5-10). 셋째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일지도 모른다.¹⁾ 비록 우리가

1) 루터, 벵겔, 라이트푸트, 고데, 브로더스, 매튜 풀, 매튜 헨리 등.

두 족보들 간의 차이의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 둘이 다 진실하고 정확함을 믿는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그의 자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인류의 구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는 살아 계시며 그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다. 그는 그 약속도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망치 말고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자.

둘째로, 예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자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 라합, 보아스, 롯,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등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실상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큰 빛을 진 자들이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다.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으나, 참 경건이 그들을 통해 흘러 내려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롬 3:2). 성경은 주로 그들을 통해 기록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과 기록인 성경을 통해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구원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 그의 족보 속에는 죄인들의 이름들이 들어 있다. 그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다(마 9:12-13). 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다. 참된 성탄 축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고 이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데 있다.